|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| 지식경제부 http://www.mke.go.kr<br>우정사업본부 http://www.koreapost.kr |
|---|---|
| 2011년 9월 1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
| 자료문의 :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팀장 임준성, 사무관 박상철(2195-1531) | |

# 추석 소포물량 서울~부산 4번 왕복, 일일 154만 개 사상최대

지난 추석 보다 7.3% 증가한 1,085만개 .. 완벽 소통

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(본부장 김명룡)는 올 추석 우편물 특별소통기간(8.29~9.10) 13일 동안 모두 1억 7,800만여 통의 우편물을 소통시켰으며 이 가운데 선물 등 소포는 평소의 2배가 넘는 1,085만 개의 소포를 배달했다고 14일 밝혔다.

소포 1,085만 개는 지난해 추석 물량(1,011만 개)과 비교할 때 7.3% 증가한 것으로 모두 한 줄로 이었을 경우 서울~부산(경부고속도로 기준 416㎞)을 4회 왕복할 수 있는 엄청난 물량이다. 가장 많이 접수된 날은 5일로 평소 하루 물량의 3배에 가까운 154만개가 접수돼 한국우정 역사상 최고 물량을 기록했다.

우정사업본부는 추석 특별소통기간에 3,500여명의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지원부서 인원까지 포함해 총 4만여 명을 소통에 투입했다. 또 하루 평균 2,500여대의 차량 등 각종 소통장비를 총 동원해 우편물을 적기에 소통시켰다.

특히 25개 우편집중국, 3개 물류센터를 비롯해 전국 3천700여 개 우체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첨단IT기반의 우편물류시스템(PostNet)과 실시간으로 우편물의 소통 현황을 점검하는 우편물류 종합상황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 큰 몫을 했으며, 1만 7천여 모든 집배원들에게 보급된 PDA를 통한 배달업무의 디지털화도 폭주하는 우편물을 적기에 소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.

한편, 우정사업본부는 한가위를 맞아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14일간'우체국쇼핑 추석맞이 할인 대잔치'를 열고 총 4,500여 종의 우리 농수축산물을 최대 20%까지 할인 판매했다. 농·어촌 지역 특산품을 취급하는 우체국쇼핑(www.epost.kr)은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불구하고 할인행사기간 동안 250여만 개가 주문되어 지난해 306억 원보다 35.8% 증가한 55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, 시장개방,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줬다.

김명룡 본부장은 "특별소통기간 첫날(8. 29일)부터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 집배원들이 적기에 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 종사원이 합심해 적기소통에 노력했다"면서 "이번 소통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우편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겠다"고 말했다.